

# 장춘, 조선족 장수로인들 축수의 큰상 받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장춘시 조선족 장수로인 효도잔치가 11월 16일,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에서 펼쳐졌다. 17명의 팔순 로인들이 이날 주인공이 되어 축수의 큰상을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만끽했다.

본 효도잔치는 로인을 공경하는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널리 고양하고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의 주최,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고운 한복차림에 빨간 립스틱으로 어여쁘게 단장하고 아직도 젊은이들 못지 않은 매력을 자랑하는 어르신들이 '장수로인' 글자가 새겨진 붉은 띠를 어깨에 두르고 주최측이 정성 들여 차려놓은 우리 민족의 전통 큰상 앞에 속속 앉았다. 행사의 시작과 함께 좌측이 기립한 가운데 국가를 추약하고 로인협회 회가를 합창하게 불렀다.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 최남규 부회장이 축사를 했다. 그는 "80년 세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도 국가와 민족

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신" 어르신들께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했다.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 전해옥 부관장은 장수 어르신들에게 진정 어린 축복을 올린 후 "로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돕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이다. 우리 예술관은 시종 로인들의 문체활동을 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총 400여명의 80세 조선족 로인들께 축수연을 베풀어 드렸다. 앞으로도 로인들을 조직해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로인들에게 유익하고 실제적인 좋은 일들을 많이 하여 로년에도 배움의 즐거움과 함께 행복한 만년을 누리도록 힘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오관어르신은 이날 큰상을 받은 팔순 로인들을 대표해 답사를 했다. 그는 "큰상을 받고 나니 저희들의 80년 인생 로정을 돌아보게 된다. 오늘 이 효도잔치에는 로인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성심이 고스란히 스며있다."고 감격해하면서 주최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로인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은 대대손손 이어가는 우리 민족의 우량한 전통이다. 우리는 민족의 전통 미덕을 대대손손 전승하고 고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로인들은 행복한 로년을 보낼수록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명기하며 당에 충성하고 남은 여생을 더욱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도구로인협회 김춘화로인의 손녀 박강림이 가족 대표로 로인들에게 축복의 인사말을 올렸다. 그는 "오늘 우리는 비할 데 없이 기쁜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 모여 존경하는 장춘시조선족 로인들의 80번째 봄을 함께 경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저를 키워주신 저희 할머니도 계십니다. 할머니가 안 계시더라도 오늘의 저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께 가장 진심 어린 축복을 드리는 동시에 어르신들로부터 힘을 얻고 전통 미덕을 전승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들께서 더욱 행복한 로년생활

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행사는 계속해 우리 민족 전통 방식의 축수 일환으로 이어졌다. 노래 <어머니 오래오래 앉으세요>의 흥겨운 가락이 흘러넘치는 속에 장춘시의 여러 조선족로인협회 대표,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 임직원과 축수 로인 가족 및 사회각계 대표들이 차례로 나와 어르신들께 추배의 술잔을 올리고 우리 민족의 큰절을 올렸다.

효도잔치는 예술관 문예일군들이 부르는 흥겨운 축가의 련장 속에 팔순의 주인공들이며 행사 참석자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며 흥겨운 춤판을 이어갔다.

2016년에 시작을 났 장춘시 조선족 장수로인 효도잔치는 올해로 9회를 거듭하면서 장춘시 조선족사회에서 하나의 브랜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정현관 류향희 기자

## 길림 인삼약선 전국 무대에서 이채 대방출



17일, 5일에 걸친 제2회 광서중약(장요약)약선대회 결승전이 광서황족자치구 남녕시에서 막을 내렸다. 고수들이 운집한 이 대회에서 우리 성 대표팀은 인삼약선 작품으로 두각을 나타내 단체 금상, 개인 1등상, 최우수작품상, 우수조직상 등 상을 수상하며 이번 대회의 모든 상을 수확한 유일한 대표팀으로 되었다. 동시에 우리 성의 제약기업과 병원팀은 '식양식품제품전시(食養食産品展覧展示)'에 참가했는데 인삼 관련 제품이 현지 군중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광서황족자치구중의약관리국이 광서황족자치구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등 8개 부문과 연합하여 공동으로 주최, 주제는 '중의학 국수(國粹)전승, 약선문화 고양'이다. 1차 경기를 거쳐 전국에서 78개 팀이 결승전에 진출했다. 길림성중의약관리국은 이번 대회를 매우 중시했다. 이미 올해초에 전 성 약선대회를 개최했고 그 토대에서 정성껏 계획하여 중의약선팀과 조의약선팀 2개 대표팀을 선발하여 참가시켰다. 이외 중의원, 료식업, 약품기업 등 인삼약선 관련 인원 총 40여명을 선발하여 대회에 참가시켰다.

대회는 각 참가팀의 약선리론기초 및 현장에서 약선을 조리하는 조작기법 등 종합 능력을 전면적으로 심사했다. 대회는 약선경기의

'약선+건강양생산업 발전 강단', 2024년도 중의약 과학기술 성과 직행차(광서역), 식양, 식이료법 제품 전람전시 등도 개설했다.

치밀한 각축을 거쳐 우리 성의 중의약선팀과 조의약선팀이 각각 팀 금상과 은상을 수상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조의를병원의 박우영, 김기호가 각각 개인 1등상, 3등상을 수상했다. 12개의 참가 작품에서 '삼꽃사슴갈비(參花烹鹿排)', '인삼자양닭(人參滋補江米鷄)'이 최우수인기상을 수상하고 '삼양팔진호(參釀八珍葫)'가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 길림성중의약관리국은 우수조직상을 수상했다.

식양, 식이료법 제품 전람전시 구역에서 우리 성의 야생 산삼, 인삼편, 인삼고체음료 등 제품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다. 남녕시인 장선생은 "인삼은 예로부터 이름난 자양품으로 알려져있다. 이렇게 많은 인삼제품을 가까이서 접하게 되어 시야를 넓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길림성중의약관리국 부국장 필명명은 "이번 대회 참가는 우리 성의 인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유익한 시도로 된다. 12가지 약선은 모두 인삼약선이다. 이는 길림인삼을 전국 나아가 세계로 진출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길림인삼이라는 브랜드를 더욱 밝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길림일보

## 국문 앞에서 이루어진 100명 청춘남녀의 집체맞선

11일, '손잡고 변방을 수호하며 집안에서 꿈을 이루자'(携手成边·筑梦集安)는 주제의 청년친목활동이 집안출입국변방감사소에서 진행되었다. 집안출입국변방감사소와 통화변경관리지대, 집안시총공회, 집안시부녀연합회, 공평단집안시위 등 부문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가 근 100명 청춘남녀가 참가했다.

행사에 앞서 집안철도국문통상구로 향해 국문경계비(国门界碑) 앞에서 총각 경찰들이 마음에 드는 처녀에게 면사포를 씌워주고 기념촬영을 남긴 뒤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행사장에서 참가자들은 '나는 너', '좋은 파트너 찾기', '신문지 줄당기기' 등 게임을 통해 인차 친해졌고 치열한 각축 끝에 '가장 인기 있는 남성(녀성) 참가자'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10여쌍의 청춘남



녀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더 깊이 료해하기로 약속했다.

통화변경관리지대 경찰 마현준은 "이번 행사에서 우수한 동년배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특히 녀성 참

가자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근무 환경을 가까이에서 체험하면서 우리의 직업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깊어졌다."며 "이민관리경찰로서 이곳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라고 전했다.

최근년간 통화변경관리지대와 집안출입국변방감사소는 변경 경찰들의 생활 수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동시에 생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경찰과 그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련의 조치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10여차례의 청년친목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변경을 지키는 경찰들의 노력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들의 소속감, 행복감, 획득감을 한층 더 제고시켜 변경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수호하는 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

/ 오건기자, 대홍장(代鴻章), 부신명(付新明), 한병우(韓秉僊)

## 매하구조종 동창들 잇을 수 없는 합동환갑식 가져

일전, 매하구시조선족중학교 82기 졸업생들은 매하구시강철건축호텔에서 동창모임 겸 합동환갑식을 치르는 방식으로 12명 동창들의 60세 환갑을 경축했다. 활동 장면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도 외국까지 널리 퍼지면서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다.

일찍 대련리공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상해에서 사업하고 있는 윤철동씨의 제의와 협찬으로 진행된 이번 모임은 여러 동창들의 호응과 노력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일분, 한국 그리고 국내 각지에서 달려온 수십명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여 잇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다. 첫번째 절차는 입장식이였다. 우렁찬 악곡 속에서 환갑 나이가 지난 선배들이 환갑을 맞는 12명의 주인공들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했고 그들에게 축하의 꽃을 달아주었다. 그리고는 생화와 케익, 과일들로 화려하게 꾸며진 환



갑상에 12명의 주인공들을 착석시키고 한명씩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이번 활동의 주요 조직자인 윤철동씨의 격정 넘치는 연설이 있은 후 장춘에서 온 안세용씨가 선배들을 대표하여 축하 발언을 하고 현재 매하구에 살고 있는 문광씨가 환갑을 쇠는 12명 동창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표했다. 12명 환갑 동창들은 격동에 겨워 마이크를 돌려가며 한명씩 60인생의 감회를 이야기해 장내에는 박수소리가 끊일 줄 몰랐다.

기념사진 촬영이 있은 후 축하무대가 펼쳐졌다. 시랑송, 독창, 악기 연주, 무용 등 정제로운 종목들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켜주고 갔다.

푸짐한 점심식사가 끝나자 참가자들은 오락활동을 펼쳤고 오후에는 공원놀이터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흥이 식지 않은 동창들은 민족복장을 곱게 차려입고 유람객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공원 여기저기서 웃고 떠들고 춤추고 노래하며 행복과 기쁨을 만끽했다. 이번 모임에 참가한 동창들은 오랜 회포도 풀고 평생 잊지 못할 감격을 경험했다며 다들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 리정호

## 연변주생태환경국 룡정시분국 물오염 예방퇴치사업 전력 추진

최근년간 연변조선족자치주생태환경국 룡정시분국은 '보호에 중점을 두고 치리에 요점을 두는' 원칙을 견지하고 국무원의 '물오염 예방치리 행동계획'과 길림성 수체 정결 행동계획을 깊이 실시하여 물환경 치리, 물생태 복원, 물자원 보호, 물자원 안전보장 등 중점 사업 임무를 실시하고 중점 분야의 물오염 예방퇴치사업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했다.

룡정시는 하천에 배출되는 오수배출구에 대한 치리를 깊이 전개하고 <룡정시 오수 직배출구 조사치리 특별행동에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해란하, 부르하통하, 팔도하, 세린하 등 주요 하천과 자연보호구, 대신저수지, 원동저수지 식수원보호구, 가금사양장 등을 둘러싸고 전 시 기존의 58개 오수배출구와 길림성생태환경청에서 선별 추천한 64개 지점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를 전개했다.

식수원지에 대한 규범화 관리를 확대하고 집중식 식수원지 및 분산식 식수원지에 대한 환경 감독관리를 한층 더 강화했다. 업종 주관부문에서 정기적으로 식수원보호구의 표지 관리와 유지를 검사하도록 독촉하고 고독성, 고잔류 농약, 화학비료의 사용을 제한 및 금지했다. 쓰레기와 유해물품의 퇴적을 근절하고 식수원의 안전을 보장하였으며 현장 및 이상 도시 집중식 식수원지 수질의 기준 도달률을 100%로 확보했다.

공업폐수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룡정시는 공업집결구의 폐수를 도시 지하수 관망을 통해 도시수처리장에 배출하게 하고 집중치리를 진행했다. 오수처리장의 물오염 예방퇴치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염물은 모두 기준에 도달하고 배출되는 물은 모두 국가 1급 A 배출 기준에 도달한다.

갈수기(枯水期)에 하천을 순찰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룡정시 하장관관실, 수리국과 연합하여 <룡정시 2024년 봄철 '청하행동' 실시방안>을 인쇄발부하고 두만강, 부르하통하, 해란하 등 28개 하천에 대한 순찰을 전개했다. 하도량안의 생활쓰레기, 가축분변, 농작물집대 등을 정돈하여 물환경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미수습지(尾水湿地) 대상건설을 전력으로 추진했다. 지역 기능 및 생태환경의 실제 수요에 따라 미수습지 건설대상을 과학적으로 계획했다. 대상의 총 투자액은 3,000여만 원으로 현재 이미 시공, 대상이 건설되면 습지를 리용한 오수처리장의 미수는 한층 더 정화되어 해란강의 물환경 품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농촌 오수 처리시설의 건설을 강화하고 농촌 생활오수 처리 임무를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변경 중점촌, 관광촌, 중심촌, 생태민간촌을 중점으로 안전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고 점진적으로 복수했다. 2024년 10월까지 룡정시 65개 행정촌중 35개 행정촌에서 농촌 생활오수 처리 임무를 완수했다.

/ 정현관기자